

“총인시설 설계 오락가락 혈세 11억 낭비”

광주시의회 시정질문 문태환 시의원 질타

조세철 “민간단체 보조사업 42개 최하위 평가”

12일 열린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광주시의 오락가락한 하수행정과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미흡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광주시의회 문태환(국민·광산2)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하수처리장 내 총인 슬러지(오니) 시설 운영과정에서 무원칙한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총인시설은 부영양화의 주범인 총인(T-P)을 낮추는 시설로 건설비는 920억원에 달한다.

문 의원에 따르면 시는 총인슬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애초 적용하려 했던 분리 방식은 하수처리장 소화조에 넣는 병합방식

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회귀했다. 문제는, 처음엔 총인시설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분리·위탁처리하기로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하수처리장 소화조에 넣어 병합처리(2012년 10월)하는 방식으로 총인시설의 설계가 변경돼 준공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그로부터 3년이 흐른 2015년 8월 슬러지 처리방식을 애초 적용하려 했던 분리·위탁처리 방법으로 다시 변경했다.

광주시가 지난 9월 분리처리방식 운영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병합방식보다 연간 4억1000여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시가 처음부터 분리방식을



문태환 시의원



조세철 시의원

고수했으면 최소 11억원을 아꼈을 것”이라며 “설계변경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총인시설을 도입, 운영하는 지자체 선례가 없어 효율적인 공병 선택에 애로가 있었다”며 “결국 병합방식이 처리 효율 저하, 슬러지 발생량 증가 등 문제가 드러나 애초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시의회 조세철(더민주·동구2)의원은 “지방보조금을 받은 사업들이 과연 시

민의 눈높이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야한다”면서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운영을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지난해 민간단체 등에 지원한 지방보조사업은 452개 사업 726억원이다. 이들 사업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성과평가를 해 이중 42개 사업이 최하위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조 의원은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의 예산만 26억원에 달한다”며 “유사 중복사업이나 성과가 미흡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감축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예산을 10% 감액하는 등 보조금 사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타워 설치하자”

조세철 시의원 주장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가장 ‘광주 타워’를 건립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철(더민주·동구2) 시의원은 12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광주타워를 건립한 뒤 타워에서 출발하는 친환경 무등산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광주 발전의 새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를 통해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구도청을 중심으로 한 도심 경제 살리기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랜드마크는 대규모 재원 조달, 부지 확보, 사업성 등 논란이 많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케이블카 설치도 무등산 훼손 논란과 사업비 조달 등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사항이다”고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새끼 손가락 걸며 “약속해 주세요” 국경감사 현장방문 일정으로 12일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을 방문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왼쪽) 할머니가 한일 합의를 취소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게 노력해달라고 요청한 뒤 “약속해 달라”며 손도장을 찍고 손가락을 걸고 있다. /연향뉴스

광주도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일반아파트 보다 비싸

문태환 시의원 주장

광주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일부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보다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문태환(국민·광산2) 의원은 12일 시정질문에서 “광주도시공사가 3개 영구임대아파트를 운영하면서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저소득층 등에게 임대료를 해주고 있지만 일부 영구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높

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H영구 임대 아파트의 m²당 일반 관리비는 263.09원으로 인근에 있는 D아파트 163원, Y주공아파트 121.91원, S아파트 151원 등 일반 아파트보다 높다. 또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rt를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S영구임대아파트의 일반 관리비는 m²당 915원으로 유의 판정을, 정소비는 268원으로 점검 필요를, 경비비는 511원으로 유의 판정을 받았다. 개별관리비인 난방비도 168원(점검 필

요, 급탕비 315원(유의), 전기료 478원(유의)으로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문 의원은 밝혔다.

광주시 자료에도 S영구임대아파트는 세대별 월 관리비가 4만8350원으로 분양 아파트인 S시영1차(3만8431원)나 2차(3만3073원)보다 높다.

S영구임대는 17평형에 500세대이며, S시영 1차, 2차는 25평, 21평으로 각각 500세대와 600세대다. 문 의원은 “15평에 사는 사람과 30평에

사는 사람에게 1만원의 가치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문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 도시공사 관계자는 “S영구아파트 관리비가 많은 이유는 개별난방인 시영1차, 2차와 달리 중앙난방으로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이 2명이 더 필요함에 따른 것”이라며 “영구임대는 주거 복지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관리비 개선이 쉽지 않지만, 다른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거점경로당 사업 중단

노인 접근성 불편 통폐합 안해 기존 경로당 보강해 복지 강화

광주시의 민선 6기 대표적 노인 복지 공약사업이었던 거점경로당 사업이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경로당 통·폐합을 통한 거점 경로당 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기존 경로당을 보강해 주민복지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이 변경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12일 민선 6기 공약사항인 거점경로당 사업이 이용 당사자인 노인들의 접근성 불편과 타 시설과의 통·폐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아 사업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거점 경로당이 비록 민선 6기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인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만큼 추진 방향을 과감히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거점경로당 사업은 기존 낡고 오래된 경로당을 통·폐합해 중간 규모의 노인 복지시설을 권역별로 여러 곳에 나눠 설치, 쾌적한 복지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76일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된 1913송정역시장 관련 게시물과 상인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12일 광주전남연구원 김광욱·민현정·한경록 책임연구원은 “광전 리더스 인포” 제25호 ‘1913송정역시장의 지속가능을 위한 세 가지 제안’에서 올해 광주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1913송정역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지속가능을 위한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4월 재개장한 1913송정역시장의 매출액은 2배 상승, 평일 평균 방문객은 3배 증가해 광주를 대표하는 명소가 짧은 시간에 자리를 잡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인터넷 블로그 게시물을 조사한 결과, 게시물은 3084건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2271), 대인예술시장(749)보

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뉴스(530)에 비해 약 5.8배 많아 잠재력이 풍부하고 자생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13송정역시장의 상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잘한 것으로 ‘깔끔한 가로 정비’(50.0%)와 ‘점포 환경개선’(20.6%)을 꼽았으며, 광주청조경제혁신센터를 주축으로 한 ‘창조적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연구팀은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공식적으로 종료 되어 상인들의 자발적 역량만으로 현 상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1913송정역시장은 ‘상승’과 ‘하락’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 점포와 기존 점포 간 이질적인 영업 환경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점포주와 임차인과의 임대료 분쟁도 향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연구팀은 상인회를 중심으로 신·구 상인 간 결속력 강화를 위한 ‘상인회의 연대 강화’를 통한 갈등 관리 및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 지속 시행 등 ‘1913송정역시장의 고객 만족도 제고’를 제안했다.

광주시는 이에따라 경로당을 폐쇄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보강해 고기능을 유지하고 거점경로당은 주민복지 기능을 일부 추가한 형태로 사업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한 경로당 활성화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기존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거점경로당을 개발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으로 올해 3월 남구 주월동에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송정역시장 이미지 “맛있고 깔끔”

기관 지원 끝나 활성화 기로

광주전남연구원 설문조사

1913송정역시장 이미지와 관련해 시장 손님들은 ‘맛있다’를, 상인들은 ‘깔끔한 가로 정비’를 가장 먼저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76일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된 1913송정역시장 관련 게시물과 상인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12일 광주전남연구원 김광욱·민현정·한경록 책임연구원은 “광전 리더스 인포” 제25호 ‘1913송정역시장의 지속가능을 위한 세 가지 제안’에서 올해 광주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1913송정역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지속가능을 위한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4월 재개장한 1913송정역시장의 매출액은 2배 상승, 평일 평균 방문객은 3배 증가해 광주를 대표하는 명소가 짧은 시간에 자리를 잡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인터넷 블로그 게시물을 조사한 결과, 게시물은 3084건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2271), 대인예술시장(749)보

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뉴스(530)에 비해 약 5.8배 많아 잠재력이 풍부하고 자생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13송정역시장의 상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잘한 것으로 ‘깔끔한 가로 정비’(50.0%)와 ‘점포 환경개선’(20.6%)을 꼽았으며, 광주청조경제혁신센터를 주축으로 한 ‘창조적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연구팀은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공식적으로 종료 되어 상인들의 자발적 역량만으로 현 상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1913송정역시장은 ‘상승’과 ‘하락’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 점포와 기존 점포 간 이질적인 영업 환경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점포주와 임차인과의 임대료 분쟁도 향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연구팀은 상인회를 중심으로 신·구 상인 간 결속력 강화를 위한 ‘상인회의 연대 강화’를 통한 갈등 관리 및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 지속 시행 등 ‘1913송정역시장의 고객 만족도 제고’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2016년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인터넷 블로그 게시물을 조사한 결과, 게시물은 3084건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2271), 대인예술시장(749)보

진월·효천지구 초입구 사거리

SH SH BUILDING

광주 남구 행암동 699번지 전용률 83%, 대지면적 1,826.90㎡, 지상 4층, 주차장 36대

임대·분양 | 진월지구, 효천지구 1만세대, 신도심 핵심상권 중심지, 빛고을 CC 노인건강타운과 전남대병원, 대규모 아파트가 연계된 중심지

1층	금융, 약국, 의료, 커피숍, 안경(입점확정), 호프, 식당
2층	의원, 커피숍, 스킨케어샵, 치과, 학원, 사무실
3층	패밀리레스토랑, 요가, 의원, 휘트니스 등, 학원, 사무실
4층	496㎡, 한식, 카페, 패밀리레스토랑 ※4층 테라스 무료사용가능(150평)

땅지분 상가지분 각 상가 개별등기 가능 준공필

문의: (062)676-4006 · 010-5681-4015

시행 성희개발(주) 시공 한아중합건설(주)

자식된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정성으로!

초당요양병원

자연과 함께하는 서비스

-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
- 환자를 생각하는 병원
- 친절한 믿음의 병원

복지프로그램

다양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에 의한 환자의 정서 및 육체적 피로 회복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간호서비스

- 간호인력의 24시간 간호 서비스 제공
- 투약관리 및 지도
- 호스피스(임종간호)

치매/뇌졸중(중풍)/호스피스/당뇨/고혈압/각종노년성질환

의료법인 승민의료재단

초당요양병원

전남 무안군 무안읍 생남1길 97-2

☎ (061) 453-4300

FAX (061) 453-1119